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도살장이 된 시리아 알레포 ...식량까지 바닥나

한 달 동안 500명 사망, 2000명 부상당해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30만 명이 숨졌고 수만 명이 납치, 고문, 사형 등을 당한 시리아의 상황이 새롭고 끔찍한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의 말을 인용해 AFP통신이 보도했다.

시리아 내전의 격전지인 알레포에서는 일주일간의 임시휴전 이후 지난 9월 22일부터 재개된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한 달 동안 500명 가까이 사망하고 2천 명이 부상했다. 희생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어린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알레포에서는 현재 기아가 전쟁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레포는 지난 7월 7일 이후 유엔의 구호물자 수송대가 진입하지 못해 곧 식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7만 명의 주민이 갇힌 채 식량과 식수,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1일 “알레포가 도살장이 됐다. 국제사회가 알레포의 비극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악몽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고는 “유엔은 시리아에서 전쟁을 벌이는 모든 당

사자의 국제법 위반을 낱알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법의학자 무함마드 아부 자파르는 “알레포가 완전히 쓸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미사일이 날아올 때 집에 있었는데 건물의 절반이 날아갔고 우리 아이는 머리에 파편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22일 현재까지 이틀째 알레포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주민과 반군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종용했으나,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환자나 주민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시편 120:1~2)

기도 | 아버지. 시리아의 영혼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거짓된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영생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맞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 네팔의 한 산속 마을에서

제공: WMM

자유롭게

방목되고 있는 수탉과 검은 돼지, 그리고 산속 마을의 한 귀여운 소녀가 나란히 사진에 담겼다. 마치 뜨거운 햇볕을 피해 모두 그늘로 피해있는 것 같기도 하다. 소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을 올려다보며 손을 모으고 있다.

소녀는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소녀가 기도한다면 어떤 것을 구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

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가장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죄 된 인간을 기도하는 존재로 회복시킨다. 성경은 피조세계도 이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젠가는 그날이 되면,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GNPNEWS]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로마서 8:19,21)

다음호는 11월 20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2)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당신께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스케줄을 잡아놓지 않으면 어려우시죠? 가족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바쁘시죠?

바쁜 삶을 당신의 능력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국가가, 주위의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쉴 틈 없이 바쁘게 몰아 당신을 아주 중요

한 사람으로 인식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욱 ‘괜찮은 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유와 명예와 평판 등으로 당신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쁘게 산 대가로 이룩하는 모든 것보다 사실은 ‘당신 자신’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 명예, 관계들은 사실 당신이 입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죽을 때 당신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벗어

두고 가야 할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벗어두고 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입고 가야 할 옷, 영원히 당신과 분리되지 않을 옷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대 고백과 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옷이며,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는 옷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반기실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길어봤자 몇십 년 후에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당신, 이제 영원한 유효기간을 가진,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바쁘다. 바빠”라고 말했던 당신은 “기쁘다. 기뻐”를 외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로 9개월간 500명 이상 사망

03 기획 |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종교개혁 통해 정립된 5대 강령

05 인터뷰 | 유대석 장로 “믿음을 지키려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공존은 불가능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로 9개월간 500명 이상 사망

정부의 오로모 족 거주지역 강제 토지수용이 발단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지난 9개월 동안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숨진 이들이 500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지난 10월초 오로미아 지역에서 추수감사절 축제 '이레자' 도중에 발생한 시위 진압과정에서 최소 55명이 사망했다. 현지 소식통은 정부군이 실탄을 발포해 3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목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AP통신은 "(보안군)헬기에서 총을 쏘며 사람들을 벼랑 끝이나 호수로 몰고 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한 시위 활동가의 말과 "밀이나 옥수수처럼 트럭에 시신을 실어나르는 것을 봤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지만, 오로미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하는 등 반발이 확산됐고, 관공서 학교 등은 일시 폐쇄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 9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에티오피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6개월간 영장없이 구금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포고령을 어기는 사람을 징역 5년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1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경계를 40km까지 확장해 오로미아 지역까지 포함하는 수도 광역화계획 발표 이후 본격화됐다. 이 계획 발표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외국 자본에 토지를 매각해왔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쫓겨난 지역민들을 정부가 특정 장소

한 곳에 몰아넣은 것이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토지수용 대상이 된 구역이 이 나라의 다수 부족인 오로모 족이 거주하는 오로미아 지역이어서 그동안 누적돼온 부족갈등이 표면화됐다. 현 에티오피아의 부족은 오로모 족이 34.4%로 가장 많지만, 현재 정부는 6.1%로 소수종족에 속하는 티그레이 족이 집권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국민혁명민주전선의 주도권은 소수종족에 속하는 북부 티그레이 족 반군단체였던 티그레이국민해방전선이 잡고 있다.

이처럼 토지 수용 문제로 시작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는 오로모 족에 이어 인구비율(27%)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하라 족까지 가세, 민주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GNPNEWS]

아메리카

미 대통령선거, 미 복음주의자 적극 개입

한국교회언론회, 미국 교회 보며 한국교회의 신앙 대처 촉구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가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의 대립으로 비춰지면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대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미국 대선 전쟁이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이란 논평을 통해 한국 기독교계가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미국 가정사역단체 포커스온더패밀리 설립자 제임스 돕슨 박사가 "10여년 전 트럼프의 발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다른 잘못도 있을 것을 확실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거보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한다."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이같이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가 트럼프를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에 열의를 내는 것은 민주당이 동성애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성윤리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6년부터 동성결혼을 지지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군대 내 동성애자 복무 합법화, 군대 내 항문성교 금지법 폐지, 동성결혼 법제화 추진에 이어 지난해부터 성전환자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언론회는 소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6월 공무원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미국 정부의 적"이라는 대통령 서한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적 편견은

변해야 한다."며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친이슬람, 성적탈민 문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권의 친 동성애 정책에 대해 흑인이라는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온 흑인 교회가 미국 반동성애 운동에 균열을 일으켰으며, 이같은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미국 목회자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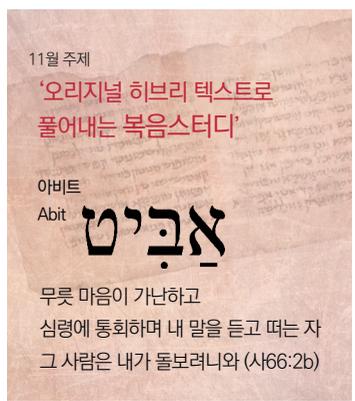
언론회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 친동성애, 이슬람, 급진 페미니즘, 이주민 정책 등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 교회 운명을 주목하며 확고한 신앙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GNPNEWS]

한국

히브리어 복음스터디 교육생 모집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내 성경언어 훈련학교는 히브리어 원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쎄굴라 히브리어 인텐시브 스쿨(SHIS)을 11월 15~17일 진행한다. 11월 강좌 주제는 '오리지

널 히브리어 텍스트로 풀어내는 복음스터디'. 장소는 서울 책읽어주는교회(지하철 8호선 석촌역 근처)이며 교육비는 3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 070-4803-9078, 010-6613-7647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9 ~ 10:2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 "일부다처제와 쉽게 이루어지는 이혼" 폐지 추진

인도 정부가 자국내 무슬림 문화 중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남편이 이혼을 뜻하는 단어 '탈라크'(talaq)를 세 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주님,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무슬림 문화로부터 온 악습을 끊을 수 있도록 인도 정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전세계 15세 미만 소녀 7초마다 1명꼴로 '조혼'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인도, 소말리아 등 전 세계 만 15세 이하의 소녀들이 7초마다 1명 꼴로 조혼 풍습에 내몰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들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나님, 전 세계의 조혼 풍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 "인생 나를 마무리했으니"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을 네덜란드가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이 자신의 것인양 쉽게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

아이티 태풍 이후 유엔 구호물자 약탈 기승

태풍으로 인해 식량과 마실거리가 없는 아이티인들이 최근 남부 반도에서 일부 도로를 점거하고 인도주의 물자를 이송하고 있는 유엔 수송대를 중간에 가로 채려 하거나 심지어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유엔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많은 자연재해로 고통하고 있는 아이티의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이들의 절망은 그 무엇보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에 부흥을 오게 하소서.

영국, 과거 처벌받은 동성애 남성 수천명 사후 사면

영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되지 않는 동성애로 기소된 약 4만5000명을 사후(死後)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에 폐기했다.

주여, 영국에서 벌어진 죽은 동성애자들까지 사면하는 기이한 풍경을 봅니다. 너무나 분명한 죄를 합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이들의 완고한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꺾이게 하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10월 5주 ~ 11월 2주

10월 5주(10.31~11.5)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11.5(06시~18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을수) 02-853-9191

11월 1주(11.7~11.12)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11.11(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11.7~11(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1월 2주(11.14~11.19)

▶경기 광주 / 동산의샘교회 (김시환) 031-765-3927

11.17~18(07~19시)

▶전주 완산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11.18(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기획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기획(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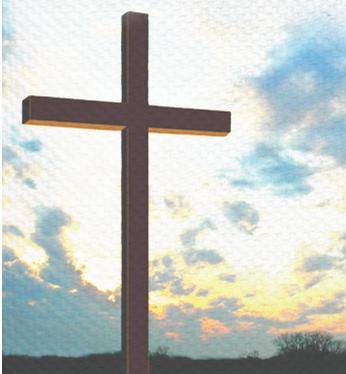
종교개혁 통해 정립된 5대 강령



▶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은 독일의 보름스 성당.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다.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리며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부르짖고 있다.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강령, 즉 다섯 가지 ‘솔라(Solas)’를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오직 은혜)’, ‘솔라 피데(오직 믿음)’는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프랑스의 존 칼빈에 의해 ‘솔루스 크리스투스(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나님께 영광)’가 더해져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되었다. 이러한 강령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지금의 우리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 <편집자>



사역과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에 있음을 믿는가

▶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마틴 루터의 시대에 ‘솔라 스크립투라’는 중세 교회의 전통, 교회 회의, 교황의 도전에 맞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고자 하는 생각에서 등장했다. 성경보다 교부들의 가르침과 교리를 더 중시한 로마 가톨릭에 맞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확립하고자 했다.

물론 권위의 다른 모습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장로, 정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같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는 여전히 성경이다. 따라서 다른 권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다른 강령들의 맨 앞에 자리하여 다른 모든 교리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조금의 오류도 없이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사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인도하심을 강조하며 성경을 무시할 때 사람들은 이 교리를 포기한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성경에 관련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함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는 사역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주셨다고 정말로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기술이나 도구로 성경을 보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과 행동의 유일한 흠 없는 규율이라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거나 성경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들을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은 이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실질적 원리

▶ 오직 믿음(sola fide)=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를 주장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했다. 신학적으로 이 교리는 ‘이신칭의(以信稱義)’ 또는 이신득의(以信得義)로 표현된다. 개혁자들은 이신칭의를 기독교의 ‘실질적 원리’라고 불렀다. 왜



▶ 스위스에 설치된 종교개혁 기념물. 왼쪽부터 종교개혁가 파렐, 칼빈, 베제, 녹스 순으로 조각되어 있다.

냐하면 이 교리야말로 바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칭의는 법률적 용어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판사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며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마틴 루터는 “칭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오는 주된 조항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전하고, 보호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믿음은 개인 안에 실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리의 지식에 온전히 맡기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정확한 지식을 가진 것 이상을 뜻하며, 복음에 동의하거나 개인적으로 감동받는 것 이상을 뜻한다.

우리의 구원, 인간의 훌륭한 결정 때문이 아니다

▶ 오직 은혜(sola gratia)= ‘솔라 그라티아’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련해 죄 된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많은 의도적 죄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일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이유가 없다.

사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상태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추구하거나 그에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중생 사역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고집함으로써 인간적 방법이나 기술,

전략 자체를 통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끌어올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줄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훌륭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생각은 은혜의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다

▶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중세 교회도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은 인간적 공헌을 덧붙임으로써 구원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부인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요 부분이긴 하지만 성자들의 공로에 의해서도 얻어진다고 가르쳤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강령은 이런 오류를 거부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 교리는 구원이 오직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확증했다. 그의 죄 없는 삶과 대속만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다른 복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을 거짓 교회 혹은 배교의 교회로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기를 꺼려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필요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전략

시킨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자존감이나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 세상적인 성공과 많은 관계가 있다. 치유 중심의 세계관이 죄와 은혜, 구속 등의 복음의 핵심내용을 대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특정한 정치 철학, 심리학, 사회학 같은 현대 우상들과 동일시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복음주의는 대중의 변덕과 감상주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운동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앞에서 말한 각각의 ‘솔라’들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마지막 논지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솔라로 통한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고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의 생각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거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만한 가정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적인 복음을 버린 데는 문화적 집착, 소비자 심리, 불신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용어로 복음을 개조하는 것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종교개혁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겨날 유일한 길은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의 영광을 추구할 때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실제로 행할 때, 진정한 부흥과 참된 개혁이 찾아올 것이다. [GNPNEWS]



선교 통신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청년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청년 리나(27)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님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매님과 저희는 지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낌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낌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헝가리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자매가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자매님은 대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학과 유럽 대학과 열방의 대학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응원으로 받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매님에게 대학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매님은 힘을 얻고 헝가리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현지 한 신학교의 교회 역사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

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리고 변화와 순종에 대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행하신 것과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00년도의 침례교 목사이며 선교사인 웅켄은 침례교의 모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유럽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아닌 가정교회 중심으로 개척하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강의를 하신 교수님은 신학생들에게 선교사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강의 시간 가운데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강의에 참여한 신학생 가운데 한 사역자는 지난 2013년 한국에서 열린 다시복음앞에 집회에 참석하신 현지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는 2014년 한국을 방문하고 많



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많은 역사를 경험한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대형교회 아닌 가정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것과 집사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알콜 중독자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습

니다. 이 신학생 세르게이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불씨를 일으키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말을 잘 합니다. 설교와 웅변이 탁월합니다. 반면, 저의 언변은 초라합니다. 어떤 현지인 사역자는 제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은 기

도밖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학 1:14)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 공사를 마치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볼 때까지 쉬지 않으시며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GNPNEWS]

우크라이나=김맹관 선교사

선교 통신

중국 종교활동 규제 강화...‘가정교회’ 직격탄 우려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10월7일까지 의견청취 뒤 곧 실시



▶ 전국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8000만 공산당원들에게 “절대 종교신념을 갖지말라.”고 경고했다.(캡처: 신화통신)

중국의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전문웹진 ‘중국을주께로’(이하 중주) 10월호가 최근 밝혔다.

중국어문선교회가 발간하는 중주는 2005년 3월 시행된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10월 7일까지 공개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 비호의적이었던 전통 가정교회와 신흥(도시)가정교회나 성당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주기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번 종교사무조례 수정을 통해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지만,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전을 위협

하는 세력은 원천봉쇄하고 ▷종교학교에 대한 관리강화 ▷종교단체 법인 자격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종교재산권 귀속을 명문화하고 ▷종교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차단하기로 했다.

종교학교 설립 원천 봉쇄

조례 초안에 따르면, 국내외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정부 허가 없이 종교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종교 사무를 위한 재무, 출판, 인터넷 홍보와 해외에서 이뤄지는 훈련도 정부의 금지와 감독권이 강화된다.

종교활동 장소에서 개축 또는 신축을 위해서는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얻도록 했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헌

금을 받을 수도, 외국에서 이뤄지는 종교관련 훈련이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 모두 종교활동을 통해 경제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투자, 위탁운영도 금지된다. 옥외에 대형 종교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며 만들었을 경우 공사비에 따라 최소 5%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초안은 이 규정 위반시 종교활동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비종교단체가 불법헌금을 받은 경우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수정 초안에 대해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종교활동 통한 경제수입 금지

이와 관련, 중주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며 해외 교계와 신학교들과 교류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앞으로는 공인을 받지 않은 가정교회로서는 각종 학교를 설립,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 될 것이다. 강행할 경우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부 공인교회

복음기도방송

팟빵
팟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복음기도방송은 복음기도신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은 용기와 격려를 얻고
삶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기도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닷컴 (<http://www.podbbang.com/>)에서,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_팟빵, 아이폰_팟캐스트 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 삼자교회 목회자가 가정교회 목회자와 교류하거나 가정교회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주는 중국 정부는 잠재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손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종교 자유에 대한 공산당 정책의 전면적인 이행과 법에 의거한 종교사무 관리를 약속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종교가 서방의 가치관을 들여오고 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공산당원은 확고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장(党章) 규정을 준수하고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찾아서는 안 된다. 외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고 종교 극단주의 사상에 의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당의 종교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지키려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공존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의 삶을 선택한 유대석 장로

사람들 앞에 그저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게 최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생명을 얻은, 아무 값없이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알게 됐다. 세상에서는 몇 번이고 바보가 되어도, 주님 안에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생명을 바라보며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유대석 장로(원주 은누리교회)를 만났다.

- 첫 질문은 늘 비슷한데요, 모태 신앙이셨나요?

“아뇨. 저희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목탁을 두드리면서 경전을 읽으셨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절에서 하는 주말 불교 학교에 다녔어요.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니까 간식 먹고 같이 찬불가 따라 부르는 재미로 다녔죠.”

- 그럼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나요?

“아내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결혼식 주례도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교인도 아닌데 안 된다고 거절하시길래, ‘어차피 저도 언젠가는 교인이 될 것 아닙니까!’ 라면서 설득했죠. 그냥 한 말이었지만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참 좋아했는데, 결혼 전에 성경책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도 했어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온 삶이에요. 교회는 결혼 후 2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의 전도로 나갔어요.”

- 교회 생활은 어떠셨나요?

“처음엔 마지못해 갔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발을 들여놓다보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새 교회가 생활이 되어갔어요. 말씀을 듣다보니 적어도 교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 건 알아야겠다 싶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2년제 신학원도 다니고요. 구약부터 신약,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배워나갔죠. 주일성수,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도 10년 이상 빠진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에도 토 한번 달아본 적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밤에라도 가서 혼자 해놓고 왔고요. 그러다보니 41살에 장로직임을 받았어요. 나이가 어려 주변에서 반대하시고 저도 사양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또 장로직을 받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 말씀을 항상 붙들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저의 신앙적인 최선이었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죠.”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에 40대에 장로 돼

- 그런 신앙생활이 문제라고 느끼셨나요?

“외적으로만 보면 성실하고 열심히 인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위로만 하려고 한 게 문제였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임해주시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07~8년 즈음 저희 교회에서 한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중보기도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하는 월요일이면 한 사람은 남아서 교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학교에 등록했어요. 그때 훈련생 중에 목회자 분들이 많으셨는데, 한 원로목사님께서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70점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모든 게 뒤집혔다면서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놀라웠어요. ‘내가 어설픈게 알았던 복음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

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걸 봐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며 살아왔구나.’ 깨달았죠.”

- 신앙생활의 큰 전환기를 맞으셨네요. 이후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선교관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당시 전기설비업체를 하면서 회사를 확장시켜 5명이 함께 주식회사를 만들고 제가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루마니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오니 바로 이사회가 열렸어요. 대표이사 해임건이 올라와 있었죠. 회사는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 기독교적인 기업이 목표였어요. 저부터 실천하려고 회사 지분도 40%만 갖고, 여직원부터 지분을 조금씩 넘겨줬어요. 많은 영역에서 직원들과 모든 걸 다 공유했죠. 그런데 회사에 재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임원들에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를 주최한 임원이 법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안건과 결정도 법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었죠.”

- 그럼 모든 게 무효처리 되었겠네요.

“아니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직원들이 한 명 두 명 죄송하다며 사표를 쓰는데, 그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직원들은 어딜 가겠어요. 조용히 혼자 회사를 나왔어요. 모두 15년 이상 함께 한 사람들이었어요. 등을 진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던 후배도 있었죠.”

-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되는 시간이셨겠네요.

“처음엔 순종하고도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기도원에 며칠 들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회사가 되지 않길 지금도 회사 앞을 지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1년 후, 지금의 회사 ‘엘타임’을 세웠어요. 내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엘타임, Eltime)을 바라보면서요.”

엘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며

- 사업을 하시면서 세상과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금 문제가 제일 힘들죠. 발주처에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줘야 하는데 주지 않으려 하는 곳도 있어요. 개인과 계약을 할 때도 그래요. 또 이중 계약서를 쓰는 것도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 결국 계약이 무산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저는 세상과 불으면 백전백패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비, 접대도 하지만 우리는 성심성의껏 일하는 것밖에 무기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믿음을 버려야 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돈은 포기해야죠.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도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 유독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회적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중에는 동창 친구도 있어요. 제 결혼식 축의금도 갖고 사라졌던 친구인데, 작업시간도 못 맞출 때가 있고 공사비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뒤처리는 제 몫이에요. 그런데 아쉬워서 또 돌아오면 받아줘요.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계속 주님을 전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님을 나뉘요.”

- 일보다 관계에 더 마음을 쏟으시네요.

“세상에 계속 배신과 속임을 당해도 그래도 바보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 문제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일을 가르치면 6개월마다 자리를 옮겨요. 그럼 말하죠. ‘일 못해도 된다, 대신 나하고

오래하자. 자격증 딸 때까지 6개월 동안 출근 안 해도 된다. 공부해라, 월급은 줄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따고 일이 잘되니 자기 회사를 등재하고 저에게 안 왔죠.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도움받을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고, 제게 오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줬어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런 상황에서 서운하긴 해도 누굴 질책할 것도 없어요. 내가 욕하고 화낸다고 변할 것도 없어요.”

-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거예요. 술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것 보면 측은해요. 도와줄 테니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자격증 따고 더 좋은 직장 있으면 그리로 가라고 해요. 있는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걸로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한 명 두 명 복음 전해서 교회도 갔어요. 아내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예전엔 왜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냐고 묻기도 했죠.”

- 저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성경책을 가져와 펼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 말씀을 항상 붙들어요. 지금도 내적으로는 끊임 없이 싸움을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주를 퍼부으셨을까 긍휼히 여기셨을까 생각해요. 저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길 바라죠.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말 없이 십자가로 갔는지 알게 되겠죠. 지금 이곳 엘타임의 사훈이 ‘선한 사업 선한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예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드시고 쓰실 텐데, 그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줘야죠.”

‘선한 사업 선한 기업’이 모토

- 교회도 많이 섬기셨다고 들었어요. “일을 다니다 보면 힘든 개척교회가 많아요. 방송 장비 하나 없는 교회를 보면 집에 있는 거라도 들고 가서 설치해 드렸어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경비로 해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재정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기도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잖아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3)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부어주시고 싶었던 열망은 어떤 것이었을까? 창세전 꿈꾸셨던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소망 없는 죄인 중 한 사람에게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 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신 것이 다윗까지의 역사였다.

특히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며, 살아계시며,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역사가 존재한 이래 이스라엘처럼 신적인 권능으로 구원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질 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시듯 하나님은 천박했던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셨다. 그들은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고, 매일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누렸다.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했고, 멸망당한 가나안 일곱 민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죄에 종노릇했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가졌지만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시대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사울조차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들려 미쳐 죽었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광의 축복은 받았지만 질질 새는 그릇처럼, 모든 기회를 흘려보내버린 이스라엘. 차라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덜 비참했을 것이다. 주신 하나님 편에서 충만했던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윗이 보고 싶었던 영광은 자기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그 어



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다.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조직의 크기나, 인간 구성원의 대담함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적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의식의 화려함이 아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날마다 짝사랑하듯 이

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저주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없었다. 깨지고 더럽고 음란한 심령이 주님의 성전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 중의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2016.2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사촌 형의 죽음을 계기로 1000명에게 전도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약속하고 전도를 시작한 지 한 학기가 지났다. 그렇게 거리 곳곳에서 순종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던 중,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사촌 형의 죽음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살아계신데 20대 사촌 형이 죽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처음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 사건 이후, 내가 맡은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이나를 가르치는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이 사명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했다. 너무도 애타는 마음으로 한 주에 100명을 전도할 결단을 했다. 비록 바쁜 일정이었지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결단한 대로 순종을 올려드렸다. 마음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 버리신 것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 얼마 후 주님께서 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150명을 전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에도 순종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었다.

전도는 젊은 내가 할 일

그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어느새 복음을 전한 영혼이 1000명을 넘기고 있었다. 그즈음 주님께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마음을 부어주셨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선배들은 이미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었는데,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학교 전도 수업 시간에 '요나 선포'라고 이름 붙인 복음 선포를 배웠다. 그때 반 전체가 그룹을 나누어 요나와 같이 복음을 외치며 거리를 돌았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 주간의 토요일에 나는 그 기쁨으로 혼자 복음을 외치며 시내에서 전도했다.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물론 떨리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했다.

그리고 지난 방학에도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전도했다. 두 달의 방학 기간 중에 전도 활동이 금지된

나라에 잠시 갔을 때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 한번도 쉬지 않고 전도했다. 그렇게 방학기간 동안 900명이 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셨다. 아직까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이시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순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도 전도를 다녀왔다. 한 아저씨는 복음을 전하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젊은데 이런 데 시간을 쓰다니..."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이게 제 할 일입니다."

그렇다. 나는 젊다. 17살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믿음의 순종을 드렸다. 어리다고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다. 늙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을 주님께 드릴 뿐이다. 지금이 드리기 가장 쉬운 때이다. 나는 말도, 성경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는다. 나의 생명을 변화시키신 이 복음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질 기도한다. 계속해서 믿음의 순종을 드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마라나타. [GNPNEWS]

신현균(17)

<5면에 이어>

Interview

“회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은 흥천 군부대 성전에 비가 새는데, 예산을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더군요. 자재 사서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지붕 고쳐드리고, 음향기기도 바꿔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던 예배실에 장비가 들어오니까 젊은 군종병들과 군인들이 악기를 치며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할 수가 없었죠. 사병 300명쯤 모여 예배를 드렸죠. 제게 주신 달란트는 그런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죠? (웃음).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요.” - 지금 팔에 김스를 하고 계시네요?

“사무실 뒤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해가 떨어질 무렵이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대추를 따고 계시길래 도와드리다 떨어졌어요. 쿵! 하는 순간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병원에 있는데 ‘주 날개 위 내가 평안히 쉬네...’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태 달려왔으니 이제 평안히 쉬라고 하시는구나. 저도 일할 때 안 되면 여전히 제 힘으로 하니깐요. 그런데 이 기회에 나 혼자 힘쓰지 않고 주변사람과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속 썩이던 친구도 이때는 일을 나눠줘서 위로가 되고, 아내도 이제

는 제가 왜 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 알아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이 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해요. 꼭 교회는 아니어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당장 주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회사 이름 ‘엘타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 기대해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좀 더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도움 드리고 싶어요. 기술 있으신 분들과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어려운 교회도 살피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예배처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GNPNEWS]

E.J.





“600인분 식자재를 구매하는 직임을 맡았다. 그런데...”

한 주간 진행되는 신앙훈련의 섬김이로 참여하게 됐다. 나의 직임은 주방팀의 회계였다. 구체적으로는 600인분의 식사를 위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주방 섬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했다.

현금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주방 장비도 그때마다 주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셔야 했다. 그래서 되도록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싶었다. 그런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못 알아듣고 중요한 물건을 사지 않아 두 번 세 번 다시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하루는 현금과 카드로 번갈아가며 결제하는 중에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 책정된 재정 규모 안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뭔가 꼬인 것이다. 장을 보는 동선(動線)을 최대한 줄여 시간



을 단축하려다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을 나중에 구입하면서 지출규모가 늘어난 것이었다. 결국 모든 물건을 반품하고 처음 책정된 금액 안에서 몇 가지만 구입했다. 덕분에 분초를 다투는 때에 가장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사고를 치다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하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나의 원래의 모습이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원래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았다

고? 그게 나왔다고?’ 아니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지난 날

밤마다 괴물로 변하는 저주에서 풀려나려고 왕자를 기다리는 어떤 공주가 사실은 예쁜 공주의 모습이 저주였고 괴물이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어느 에니메이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동안 내게 믿음의 삶이란 실수도 또는 오해를 받아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선하고 좋은 모습들로 그려졌다. 그런데 실제 나는 실수투성이고, 모나고, 연약하고, 헛갈리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다. 실수와 실패 앞에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웠다. 주님은 이런 나를 부르셔서 주님만 믿고 함께 가자

고 하신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곧잘 상하고 정말 좁아터진 마음, 두려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불러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서 있으려 한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보게 되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때문에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오히려 ‘괜찮은 자’라고 속아왔던 나를 깨뜨리시고 진짜 원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내가 생각한 믿음의 삶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던 내 원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공주가 어느 동화처럼 예쁜

공주로 남길 원하지 않고 괴물인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찾게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시간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변화를 마음껏 이루어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다. 매일 매순간이 주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 아주 작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도, 또 너무 크고 광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때에도 주님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나와 교제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또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만 믿으면 되도록 불러주시는 오늘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GNPNEWS]

박남희 선교사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북한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설치된 스피커 모양의 라디오가 있다. 주파수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으며 채널은 하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수입한 라디오는 납땜으로 주파수를 고정시킨 이후 사용할 수 있다. 라디오는 방송이 나오면 소리조절만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채널의 방송을 듣다 발각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다른 나라나 한국 소식, 환율정보, 날씨 등을 알기 위해 라디오를 몰래 듣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수천명의 감청요원들을 동원해 전파방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통신부대에서 직접 전파방해 업무를 맡았던 20대 후반의 장수원(가명)형제의 경험담이다.

전파방해업무 중 남한방송 들어

“얼마 전까지 평양에 있는 통신부대에서 4년 동안 남조선방송에 주파수를 맞춰 놓고 사람들이 듣

지 못하게 하는 전파방해업무를 맡았습니다. 군은 통신대대와 중대 생활을 하며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고 훈련을 잘하는 사람 3~4명을 뽑습니다. 그들을 산꼭대기에 위치한 기지의 강도로 데려가 한국 주파수에 맞춰 전파방해를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25평 정도 되는 강도 안에 훈련을 받은 1분대 4명이 생활합니다. 강도 안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식사준비 등의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4명이 2조로 나뉘어 12시간씩 교대로 전파방해 업무를 실시합니다. 12시간 업무를 하는 동안 화장실 다녀오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심지어 식사도 자리에 앉아 해결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송수신을 합니다.

제일 힘든 것은 수시로 전화검열을 하고 군단통신과에서 직접 내려와 검열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그 일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 대충 할 때도 있고, 한쪽으로 주파수 방해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남한 방송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람이 오는 기척이 나면 출력을 높이면서 전파방해를 합니다.

김정은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도 엄청 못했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했고, 김정은의 나이도 몰랐는데 남한방송을 듣고 32세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남한방송은 다르게 말하니까 호기심이 나서 더 듣게 되고, 우리는 정말 마음껏 남한방송을 들었습니다.

북한정부에서는 외부소식을 듣지 못하게 폐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남한방송이 들려질 때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소리’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방송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고, 남한에서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인 ‘솔라미 우물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남한방송 통해 예배 알게 돼

북한에 남한방송의 전파를 방해하는 전문 감청요원이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장수원 형제처럼 남한 방송, 특히 복음방송을 듣는 또 다른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북한에서 ‘광야의 소리’ 방송을 들었던 한 북한성도의 고백이다.

“저는 평안북도 평성에 사는 하



▶ 몰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위)과 기도하는 북한 아이들(출처: KBS, kidsofcourage.com 사진 캡처)

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제주극동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4시에는 방송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선에서 설교방송은 들었지만 ‘광야의 소리’ 방송예배를 들으며 남한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찬송을 함께 따라서 부를 수 있고, 최근에 조선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몇몇 사람에게도 알려서 함께 방송을 듣습니다.” [GNPNEWS]



“결코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16세기 중반의 영국, 독실한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이 즉위하면서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거세졌다. 하지만 존 후퍼는 박해 한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미신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 교회의 부패한 죄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믿음을 철회하라는 험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그러나 후퍼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순교는 그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추운 겨울, 화형대의 불이 지펴졌다. 그는 불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두 팔로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전하려 한 것일까?

순교하기 3주 전 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덕, 힘 그리고 권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든 역경을 이기고 지조를 지키십시오. 싸워야 할 최고의 순간에 결코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GNPNEWS]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미라클 프롬 헤븐(Miracles from Heaven)**

‘오늘’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기적의 하루



드라마 | 미국 | 패트리시아 리건 | 109분 | 전체 관람가 | 2016

정상적이던 이전의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들 가족의 삶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변해버린다. 애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없다. 심지어 공기를 마셔도 뱃속에서 부풀어 쉬지 않는 고통을 고스란히 맛보며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행복하던 가정은 서로를 돌볼 수 없었고, 애나를 위하여 아빠는 두 개의 직장을 잡아야 했으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야 했다. 엄마는 집에서 비행기로 세 시간 떨어진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애나를 간호했다. 하지만 그 분야의 가장 유명한 의사조차도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하며 손을 놓았다.

집에 돌아온 애나는 언니와 함께 평소에 하던 대로 오래된 고목나무에 오르게 된다. 애나는 손을 잘못 짚어 속이 텅 빈 9미터 높이의 고목나무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 엄마는 절박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진 애나는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는다.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애나는 더 이상 진통제도 먹지 않고 아프기 이전처럼 몸이 회복되어 씩씩하게 뛰어논다. 의아해하는 부모에게 애나는 자신이 고목나무 속에 떨어졌을 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시 깨어나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고 터무니 없어 보이는 이야기였지만 애나는 확신이 있었다.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되겠지요.” 애나에게 기쁨과 자유가 넘쳐흘렀다.

일상에서 벌어진 기적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영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진 기적을 말하고 싶었다. 애나와 엄마가

수소문 끝에 전문의를 찾아갔지만 예약 대기자가 너무 많아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친절을 베풀었던 식당 종업원,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그녀를 측은히 여긴 신입사원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된 일, 점점 악화되는 애나를 만나러 가기 위해 공항에 간 아빠와 자매들이 카드 한도 초과로 비행기 티켓을 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일부러 컴퓨터 전원을 꺼서 수동으로 티켓을 발권해준 직원.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나 인간의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초점이다. 9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난 기적보다 그 기적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다. 고목나무 속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애나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설명해내려고 했던 애나의 주치의 역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은 우연이나 무묘한 반복이 아니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기적의 하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허락된 모든 상황을 최선으로 받고 매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삶은 힘차고 역동적이며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다. 대단한 이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그때 뿐만이 아니라 가장 흑암이 짙었던 암흑시대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경배하자. 십자가로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셔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최고 최대의 기적이다. [GNPNEWS]

김도승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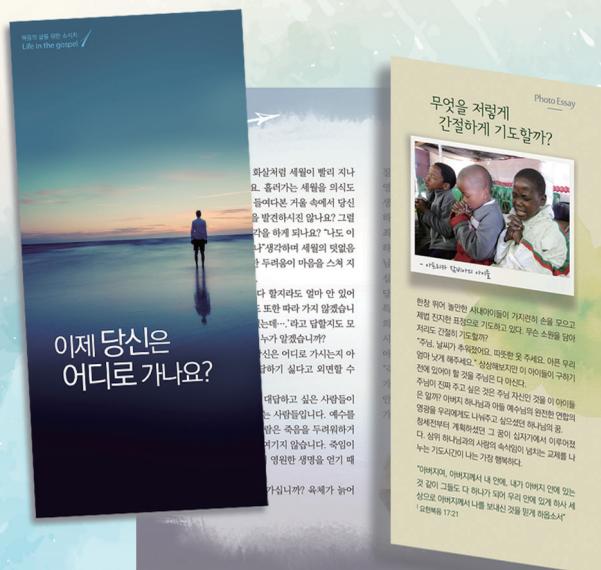
이 영화는 이 땅의 논리와 이성, 상식과 과학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초월적인 기적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숨 쉬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에 건강하던 둘째 딸 애나(10세)가 불치의 병에 걸린다.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복음과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prayermedia

구입문의 **가격 : 100매(5,000원) 이상 주문 가능**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prayer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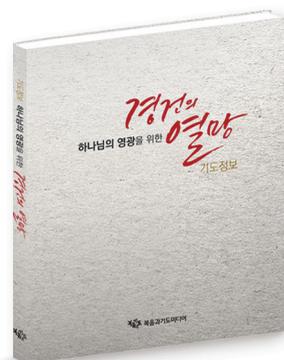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해 앞둔 이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루에 한 주제씩 총 150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정보집 5권



날권 세트(케이스 포함) : 8,000원



5권을 통합한 단행본 출시
통합본 : 6,000원

구입문의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10. 6 ~ 10. 21 (가나다 순)
개인
강성열 강종재 권해령 김대혁 김민성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영임 안병윤 유자인 윤경석 이경희 이지영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조상국 차인순 허금희 홍미자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동명교회 망우제일교회 성경언어훈련학교(BLTS) 순회선교단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은혜신일교회 인천주님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진전교회 하늘영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